학생운동과 대학생의 정치 참여 : 회고와 전망

배 한 동 | 경북대 윤리교육과 교수

1. 학생 데모와 한국의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다시 오고 있다. 지금부터 40여 년전 1960년 4·19 학생의거의 유혈 사태까지 초래한 잔인한 봄, 박정희 정권의 비극적인 종말과 함께 잠시 찾아왔던 1980년의 서울의 봄, 신군부의 집권을 저지하려던 광주의 5·17도 늦은 봄에 일어난 거사였다. 1987년의 6월 민주 대항쟁도 그 해 봄부터 준비된 투쟁의 결과였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봄은 반독재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정치적 저항과 반항으로 얼룩진 봄이었다.

흐르는 역사의 굽이는 다시 새천년 첫해의 봄을 맞이하고 있다. 봄을 알리는 소쩍새 소리는 다시 들려오는데 연중 행사처럼 찾아오던 학생들의 봄의 함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2000년 새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그동안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학생운동을 회상하고 앞날을 조망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 나라 대학들의 정치 참여는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을 통하여 학생운동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 대학생의 정치 참여도 학생자치조직인 전국대학총학생회조직(한총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학생운동론적 시각에서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에 있어서 '운동'이란 제도로서 금지되고 기득권자에 의하여 묵살당한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다중 동원적인 해결 노력이며 행동양식이다. 권위주의적인 독재 권력에 대항한 학생운동도 국민의 민중적인 지지를 획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항의와 시위는 정치 불안의 요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학생운동의 지도자가 수배·검거·투옥되기도 하였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되는 학생운동도 이러한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새로운 천년대의 시작인 봄의 문턱에서 지난 반세기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 문제를 학생운동을 통하여 회고해 보고, 앞으로의 학생운동을 전망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한동안 계속되던 학생들의 격렬한 데모는 이제 지난날의 유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인가? 오늘의 한총련 중심의 학생운동은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학생운동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대체로 해방 이후의 학생운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는 체제 개혁적인 노선과 반체제 이데올로기적 변혁운동이 혼재되어 전개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학생운동을 더욱 급진화, 경직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 민주화라는 넓어진 공간하에서 학생운동이 더욱 교조화되고 폐쇄화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목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6월 민주항쟁까지 반독재 투쟁으로서의 학생운동을 조명해보고, 나아가 6월 항쟁 이후 급변한 반체제 변혁적 학생운동의 배경을 검토하여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보는 순서로 기술할 것이다.

2.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서의 학생운동

해방 이후 학생운동을 통한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그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학생들은 신분상 오직 학업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보수적 시각에서부터 학생들도 학생이기 이전의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학생들이 본업인 학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학생운동을 반독재 구국 투쟁의 선봉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해방 이후 4·19와 5·17, 6·29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나라의 학생운동은 일부 반체제적인 성향도 있었지만 대체로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체제 개혁적인 운동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국 학생운동의 연원은 꽤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조선조에도 성균관 유생들은 상소문을 통하여 국왕에게 집단 항의를 하였으며, 그러한 전통은 구한말 한일합방과 일제의 강점기에 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사건은 일제치하에서 학생들의 항일 독립정신을 표출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1]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 구국 운동은 해방 후에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으로 연결되어 위대한 4월 학생혁명이라는 금자탑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유신 독재투쟁으로, 1980년대에는 전·노 신군부독재 타도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전통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30여 년의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청년 학생들의 학생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는 역사의 굴절된 고비마다 민족의 양심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사회 개혁의 매체로서, 그리고 민주화 촉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이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학생운동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운동은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민적인 여론을 대변하면서 민주화의 기폭제나 견인차로 역할을 대행하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그 동안 반독재 투쟁을 위하여 '부정 선거 규탄, 한일 회담 반대, 유신 헌법 철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쟁취' 등 당시의 모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자유당 이승만의 카리스마적 독재, 박정희의 쿠데타와 군사독재,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의 통치하에서 학생들의 의로운 반정부 투쟁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타 세력에 비하여 이해 관계를 초월하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앞세운 학생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참여는 그 순수성으로 인하여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

1) 1929년 11월 3일 일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들에 대한 희롱에 분개하여 일어난 광주학생사건은 전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으로 확산되었고, 1953년 그 날의 참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 지금의 '학생의 날'이다.

다. 그러므로 기성인들이 청년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학문을 통하여 이론과 정치 현실의 모순을 직시한 학생들은 현실 정치에 대한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것이다. 학생운동은 역대 정권의 폭압적 탄압에 맞서 어려운 난관과 불이익, 자기 희생을 통하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학생들의 이러한 희생적 실천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셋째, 1987년 민주항쟁 때까지의 학생운동은 다소의 급진성과 체제 변혁적 색채를 보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 주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학생들의 순수한 운동도 혁명적인 반체제운동으로 오인되어 단죄 당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인 성향은 체제 개혁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해방과 분단, 권위주의적 통치와 독재에 항거하는 지난 반세기의 청년 학생들의 함성은 모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까지의 학생운동은 모순된 사회 구조와 왜곡된 정치 풍토를 개혁하기 위한 견인차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한총련식 학생운동은 그 운동성향이 반체제적 변혁 운동으로 선회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나 학생들의 참여도 줄어들었다.

3. 반체제 변혁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

1987년 6월 항쟁이후 학생운동은 체제 개혁적인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 체제 변혁적인 반체제 운동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는 오늘의 학생운동이 과거의 개혁적인 민주화 운동에 치중하기 보다 체제 변혁적인 이데올로기 운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에서 20세기 초·중반에 풍미했던 학생들의 반체제 운동이 199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나라 학생운동이 이렇게 과격화된 이념 운동으로 편향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반의 삼민투와 자민투로 이어지는 학생운동권의 좌파 이념논쟁은 운동의 성격을 과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말 학생 정치조직인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 계열인 NL 주사파는 '전투적 학생회론'을 내세움으로써 더욱 급진적인 성향을 노출하게 된다. 이 조직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위력을 발휘한 후 '전대협'으로 개편되었고, 그후 1993년 6기 전대협은 기존 조직보다 더 강도 높은 총학생회 연합체인 '한총련'을 결성하고 비NL계까지 편입시켰다. 이후 한총련은 반체제적인 이념조직으로서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1990년대 학생운동을 이끄는 구심체가 되었으나 연세대 사태 이후 그 세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 후 한총련 중심의 학생운동은 주류인 NL계와 비주류인 PD계로 분열되고, 양측은 지금까지 이념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학생운동의 양대 산맥인 NL과 PD는 한국사회 구성체의 성격 논쟁에서 전자는 '식민지 반봉건주의 체제론'을 주장하면서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후자는 '신 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을 주장하면서 민주·민중·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NL은 우리 현실의 주요 모순인 민족 모순과 분단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미 조통투쟁"을 전개하면서, 남북 해외의 3자 연대 운동을 범청학련과 연계한 반미 통일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PD는 계급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민중 연대 투쟁"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역점을 둔다. 양자는 공히 사회구성체론의 입장에서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 지배 상태로 규정하고 이같은 모순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통일운동이나 민중운동 등으로 투쟁 방식만 달리할 뿐이다. 양자는 똑같이 사회구성체가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노동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중시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학생운동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라도 대학의 학생운동 조직이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반체적 변혁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운동이 이념운동으로 치닫게 된 것은 우리 대학이 독재 정권 하에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내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두려움을 모르고 용기있는 학생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으로 독재의 폭압에 대한 헤게모니를 형성하면서 대항 이데올로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운동권은 민족·통일·민중 등에 관한 비교적 정교한 이론을 가진 고도의 조직화된 집단인데 비하여 무정형의 비조직적인 다수 학생은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나 지식인들도 이념논쟁을 통하여 운동권 학생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고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방기하였다.

셋째, 6월 항쟁 이전까지의 학생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학생운동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지식 풍토도 일조하였다. 그들은 그 동안 학생운동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쌓은 역사와 업적을 전대협이나 한총련이 그대로 답습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 동안 학생운동에 대한 공개적·조직적 비판이나 대항은 민주화에 대한 모반이라는 인식이 암암리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넷째, 체제 개혁을 원하는 보통학생들이 운동권이라는 체제변혁세력을 이용하여 상황 돌파를 꾀한 것이 운동권 세력을 키운 결과가 되었다. 6월 항쟁 이후에도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상존하여 사회민주화의 길은 멀었고, 통일 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한 정권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인 보통학생들은 운동권학생들의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거친 행동만이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에 충격을 주고 체제 전환의 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6월 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의 '주적(主敵)'인 독재와 권위주의체제는 사라지고, 뚜렷한 '대항적(對抗敵)'이 형성되지 못한 시점에서 학생운동은 더욱 과격한 양상을 띰으로서 운동의 헤게모니를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다. 최근 한총련 주도의 통일운동에서는 친북적·반체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의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범민족 대회 개최, 미국 성조기 소각, 한총련대표 방북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또한 한총련 조직은 그 전투적 성향에 걸맞게 하향적·관료적 조직체계를 형성하고 획일적 통일을 꾀하였으며, 지도자에 대한 공경심, 조직의 일사불란을 도모하고 투쟁 방식에도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로 인한 조직의 폐쇄성, 주장의 지나친 진보적인 논리는 학생운동의 분열과 반목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의 형성과 사회민주화 등 민주적 공간의 확대는 운동권 학생들이 주창하는 좌파 이론에 대한 반공 신드롬을 해소시켰으며, 운동권 내부의 분열과 노선투쟁은 이념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운동의 노선을 친북적인 노선으로까지 치닫게 하였던 것이다.

4. 한국 학생운동의 고민과 갈등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아 세계는 개방화와 정보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지 오래다. 우리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군부 30년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당간에 정권의 수평적 교체도 이룩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시민 사회의 역량도 과거보다는 성숙되어 있다.

바야흐로 새로운 민주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한총련 중심의 학생운동은 이러한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므로서 운동권 내부나 외부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은 한총련의 NL계열과

PD계열의 통일운동이나 민중운동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좌경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민주적이고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할 학생운동이 조직의 폐쇄성, 이념의 교조성으로 인해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화 되고 있다는 비난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 방향은 보수층 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들로부터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대학의 '보통 학생'들에게 외면당하여 '학생이 없는' 학생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총련 주도의 학생운동은 정당성의 위기 앞에서 고민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현실적으로 운동의 이념과 노선설정 문제로 심각한 갈등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탈사회주의 사조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그들에게 이념상의 지주를 상실케 하였다. 1989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세계사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학생운동권과 좌파 지식인에게도 사상적 준거틀을 상실케 하였으며 논리의 뒷받침을 잃게 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체제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실하게 되는 시점에서 학생운동의 친북적인 반미 자주화 노선에 대한 집착은 일반 학생들의 지지도 획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 다수의 학생이 배제되고 소수 극좌 모험주의적 학생들의 운동조직과 방향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친북적인 태도를 마치 진보성의 척도인 양 생각했던 우리의 지성 문화는 신랄하게 비판받게 되었다. 서구 좌파 지식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한은 반인간적이고 보수적인 퇴영적 관료 체제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친북 성향의 좌파 지식인의 목소리도 낮아지고 진보적 재야 운동권이나 학생운동권도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한편 군부 정치의 청산, 그리고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일련의 민주화 개혁 조치는 학생운동이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체제 변혁을 외칠 명분을 잃게 하였다. 반미 자주화 투쟁, 친북적인 연방제 통일운동, YS나 DJ타도투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받기 십상이었다. 한총련 스스로도 '계급 투쟁의 실패'로 운동 세력은 학우 대중의 가시권을 벗어나 고립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재야 운동권 지도자들과 학생운동의 선배들인 386세대도 상당수 제도권으로 대거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운동의 폭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1990년대 후반 시민사회 단체의 성숙은 사회 민주화를 촉진하고 학생운동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어 급진적인 반체제적 학생운동을 더욱 고립화 시켰고, 우리의 사회운동이 정치·환경·여성·노동·교육·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인과 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체제 개혁 운동에 성공하므로서 학생운동은 더욱 설 자리를 잃었다.

그로 인해 이제는 학생운동 세력이 사회 민주화를 견인해 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소비문화 풍조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운동권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을 부채질하였다.[2] 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어는 정치보다 문화 쪽으로 기울어지고 배낭여행, 해외 어학연수 등의 문화체험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대학 풍토에서 학생운동은 더욱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없고 고립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한총련 주도 세력은 총학생회 주도권 장악에 실패하고, 비운동권 세력의 학생회 진출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총련 노선을 비판하는 가운데 한총련 내에서도 분열상이

2) 오늘의 대학사회는 사회 변혁을 외치는 소수의 학생과 개인주의적 안일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학생으로 양극화 되기 시작했으며, 그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어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는 양심적인 학생들이 많았다. 썰렁한 집회장, 취업 준비로 만원을 이룬 도서실, 학교를 포위한 학생들의 자가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눈은 '사회에서 자신'에게로 돌려 지고 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광장에서 동굴'로 옮겨지고 있다.

노출되고 한총련 탈퇴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학생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치열하고 결국 학생운동 단체는 한총련 중심의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분열되고 있다.

오늘의 한총련 중심의 학생운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교조성과 조직의 폐쇄성, 투쟁 방식의 과격성으로 인하여 학생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학생운동이 아직도 구태를 청산하지 못하고 이념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1세기 탈이데올로기적 개방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운동방식은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즉, 반체제적 변혁 논리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적 학생운동은 급진적인 재야단체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의 어느 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학생운동은 과거 반독재투쟁 시기의 운동 방식과는 결별해야 함에도 여전히 좌파 성향의 이데올로기 운동에 매몰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생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실천을 통하여 쟁취한 오늘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 학생운동의 고민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5.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하여

21세기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 학생운동은 새로운 진로 모색과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대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경실련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3] 대학생 정치 참여의 장(場)인 학생운동은 그 조직과 운동 방향을 쇄신하지 않고는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외면당한다. 학생운동이 현재와 같은 한총련 운동에 집착할 때 과거 찬란했던 학생운동의 성과는 쇠퇴하고 순수한 학생운동의 에너지마저 소진시킬 것이다. 한총련 중심의 학생운동은 내외의 도전에 의하여 위축되고 있는 데 그럴수록 그들의 행동 반경은 교조화되고 과격화될 지도 모른다. 이제 학생 운동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오늘날 사회는 기존의 질서는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일부 학생 세력이 아직도 주장하는 급진적인 체제 변혁적 이데올로기성 학생운동이 대학에서 사라질 때 건강한 학생운동은 싹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운동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혼탁한 정치는 앞날의 정치 발전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 역사는 가끔 반동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거나 정치 권력의 효율성이 상실되고, 권력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 국민의 뜻을 저버릴 때 학생 세력은 또 다른 비판 견제 단체로서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의 현실 문제에 부단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청년 학생들의 기본적 사명이다. 학생운동의 우상이 된 마르크스주의가 병든 기존 질서를 비판·극복하는 혁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청년 학생 세력 밖에 없다고 갈파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대학에서 좌경화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학생운동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학생운동이 공통적으로 '국민적인 적'이라고 간주한 폭압적인 통치 구조가 소멸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새로운 과제를 찾

3) 경실련 학생회는 '다시 출발하는 학생운동'을 강조하고 경실련 대학생회의 발기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자고 선언하고 있다.
① 경제 개혁과 부정 부패 추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합시다 ② 환경운동을 전개합시다 ③ 생활문화 혁신 운동을 전개합시다 ④ 새로운 통일 운동을 전개합시다 ⑤ 학원 개혁 운동을 전개합시다

아 나서야 한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통치 구조에서의 반독재 반체제적인 슬로건과 집단 행동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탈(脫) 한총련과 포스트(post) 한총련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학생운동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운동은 한국의 시민사회나 대학의 변모에 맞추어 반체제적이거나 급진적인 변혁 운동보다는 점진적인 구조 개혁 운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법과 제도를 무시한 공권력과 물리력에 의한 통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은 이데올로기적 운동에만 집착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동안 학생운동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안을 주장함으로서 대중적 지지는 물론 학생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단순 경직된 구도만을 주장함으로서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였다. 과거 독재치하 학생운동의 군부 독재 타도 등은 지극히 선명하고 당위적인 주장으로 상당한 사회적 합의를 구한 바 있지만, 오늘날 한총련의 이데올로기적·혁명적 대안은 동의를 얻지 못하고 배척받고 있다. 또한 과거와의 전면적 단절과 청산을 통해서만 비약적인 발전을 보장한다는 변혁과 혁명의 논리가 지닌 환상성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다. 우리는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 확장과 제도의 개선, 의식 향상이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이상적인 민주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운동은 학내·외로부터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동의 방향을 중층화·다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의 이슈가 노동문제, 통일문제, 미제축출문제, 연방제 지지 등 반식민지 투쟁만을 고집할 때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외면한다.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와 미제국주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지배와 착취라는 계급문제로 국한시킬 때 학생운동에서 주체인 학생들은 떠나버리게 된다. 나아가 학생운동의 전선을 중층화·다변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참여 의지, 관심과 취향에 따른 다면적인 접촉 영역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다양화·다원화된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라는 하나의 대결 구도만으로 학생들을 조직화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 나아가 이같은 급진적인 학생운동의 기존 노선 고수는 대중들의 참여 통로를 차단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의식 고리 형성을 스스로 끊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학생운동 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개방화·다양화·다원화되고 선악의 대비가 흐려짐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은 다른 이견을 불온시 하거나 개량시 하고 다양성을 분열로 보는 풍조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거나 수렴되지 못하고 언로가 차단되면 조직과 운동은 쉽게 경직화 되고 교조화 된다. 이 때 지도 세력은 현실과 대중의식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대중과 괴리되고 조직은 폐쇄화·관료화 한다. 그 동안 학생운동은 일정한 커리큘럼에 의한 주입식 학습과 대정부 투쟁이라는 하나의 방식과 통로만으로 일반 학생들과 접촉하여 왔다. 그 결과 그들의 운동 노선은 민주적 중앙집중제 원칙을 고수하고, 제야 민중운동단체인 범민련이나 범청학련의 슬로건이 한총련의 지침과 이념이 되기도 하였다.

넷째, 학생운동은 정치 권력이나 정부가 관심을 갖지 못한 소외된 영역에 관한 지원을 촉구하는 NGO와 연계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이후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장과 시민사회 단체의 성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국민적인 지지와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본과 시장의 경쟁 논리로는 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풍요 속에서도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세민 계층,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생산 노동자 계층, 자본의 횡포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환경 오염, 정치 개혁의 요구 속에서도 구태를 벗지 못하는 정치 풍토,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정치권의 부정 부패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운동을 위한 진지한 연대와 참여는 학생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요구가 자본과 권력의 횡포에 의하여 좌절되고 있는 곳에서는 시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학생운동으로 동력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은 시민운동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의 연대는 학생과 시민을 결합시킴과 동시에 학생운동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학생운동은 대학 자체의 문화개선 등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학생회장 선거의 선거문화 정화 운동, 형식적인 각종 행사의 홍수 속에서도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 오염된 대학문화를 정화, 대학생의 봉사활동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일이 학생운동이나 학생회 활동이 추진해야 할 기본 과제이다. 우리 대학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에 대한 고민과 사색, 비판과 참여의식이야 말로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무이며 특권이다.

배한동

경북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남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독일 아이히·슈로스 정치교육원을 수료하였다. 최근까지 경북대 학생처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학생처장협의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였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와 감사를 역임하고, 민주 시민 교육학회 대구·경북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북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희망의 시민 포럼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유로컴뮤니즘 연구』 『북한 개론』 『참된 삶의 길』 『한국민주주의와 시민교육』 등이 있으며,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